

희생자 33명 지문 감식 불가... 신원확인 난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틀째 유가족들 뜬눈으로 밤 지새워 장례 절차까지 최소 10일 전망 공항 1층 합동분향소 설치키로

제주항공 참사 이틀째인 30일 무안국제공항 대합실은 유족들의 오열하는 소리로 가득했다. 유족을 위해 마련된 텐트형 임시 쉼터(쉼터)가 공항 1, 2층에 마련됐지만 유가족들은 가족의 이름이 불려지지 기다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이날 오전 무안공항 대합실은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유가족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번 참사로 자식을 잃은 한 어머니는 "내 딸 불쌍해서 어떡해"라고 울부짖으며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대합실 곳곳에서 유가족들은 밤새 축각을 곤두세운 채 희생자의 신원 확인 소식을 기다렸다. 일부는 의자나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누워 새우잠에 들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브리핑 현장을 쫓아다니며 조바심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소식을 듣고 뒤늦게 달려온 한 유가족 역시 먼저 와있던 유가족을 만나자 눈물을 쏟아내기도 했다. 쉼터에서도 "내 자식 살려내", "우리 가족 이제 어떻게 살라고" 등 유가족들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공항은 거대한 빈소가 됐다.

국토교통부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피해자 179명 가운데 146명의 신원이 잠정 확인됐다. 전체 시신 179구는 임시 안치소인 공항 내부 격납고로 옮겨졌다. 다만 시신 훼손이 심한 경우가 많아 일부 사망자의 신원 확인이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33명은 DNA 분석과 지문 채취를 통해 신원을 확인 중이다. 이들 중에는 일부 시신 훼손 정도가 심

하거나 어린이, 청소년 등 지문 미등록자의 경우 지문 감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확인이 늦어지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참사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가 진행되기까지도 최소 10일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179명의 사망자 가운데 장례 절차를 위해 유가족에게 시신을 인계할 수 있는 사망자는 5명으로 확인했다.

희생자 수습과 신원 확인을 맡고 있는 전남경찰은 시신들의 훼손 정도가 심해 모든 사체의 DNA 검사가 끝나야 장례 절차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안을 통해 시신 인도가 가능한지를 국과수와 협의해서 판단하겠다"며 "모든 시신들의 훼손이 상당하고 상대적으로 온전한 시신은 5구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신 훼손 정도가 매우 심각해 검안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며 "많은 유가족분들이 빠른 시신 인도를 요구하고 있으나 최대한 희생자의 시신을 온전히 하기 위해 절차가 필요하다.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 현장을 찾으며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던 유가족들은 울음기 가득한 목소리로 신속하게 시신을 수습해 온전하게 가족 품으로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희생자의 시신 훼손 정도가 너무 심해 수습하는 데 많은 시간이 든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인력을 충원해서 신속하게 내 형제, 가족들을 80%라도 온전한 상태로 (가족들) 품으로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무안국제공항 1층에 설치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전남도는 유족들의 뜻을 존중해 무안국제공항 1층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키로 했다. 공항 1층 분향소는 31일 오전 9시께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2·3·4면 **정성아 기자**



지난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가족들이 유전자 채취 동의서를 작성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공조본, 尹 체포영장 청구...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

청구 주체 공수처, 수색영장도 '영장 발부되면 거부 사유 없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조사본부)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현정사상 처음이다. 공조본은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청구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청구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청구의 주체는 공수처 검사"라고 밝혔다.

이번 체포영장 청구가 대통령 경호처에 의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산된 것에 따른 것이냐는 질문에는 "압수수색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다.

대통령경호처가 압수수색에 대한 불응인 사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 사유를 소명해달라는 내용과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하라는 공문을 오늘 발송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27일 오후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불응으로 무산된 바 있다.

공조본은 지난 17일과 18일 대통령실 경호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한 바 있다. **2면에 계속** **뉴스**



1월 1일자 신문 습니다

김흥탁의 Branding Class 3기 모집

“마케팅의 모든 길은 브랜딩으로 통한다”

- [모집 인원]** 00명 내외
- [강의 장소]** 전남일보 승정문화관
- [강의 기간]** 2025년 3월10일 개강-5월26일 종강 (10회+보너스 과정)
- [강의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6:30-8:30(2시간)
- [접수 기간]** 2025년 1월부터 3월 초까지
- [수강료]** 220만원(부가세 포함)
- [문의]** 전남일보사업본부 (062-519-0730)

- [강사 이력] Creative Solutionist 김흥탁**
- Founder /2kg_Creative Solution Lab
 - Chief Creative Officer / Paulus_Creative Agency
 - International Board of Directors / 뉴욕 One Club for Creativity
 - Collective_International Board of Directors / Adfest
 - 전 Chief Content Officer /전남일보 총괄 콘텐츠 디렉터
 - 전 Visiting Professor/ Yonsei University
 - 전 제일기획 Creative Innovation Group 마스터
 - 국가브랜드 프로젝트 총감독
 -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자문 위원
 - [빌게이츠재단+ Cannes Lions] 주관 세상을 돕는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위원:멘토
 - [UN+One Show New York] 주관 지속가능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 심사위원장
 - Cannes Lions, One Show New York, London International Awards, New York Festival 등 Global Creative Festival 수상, 심사위원 및 Speaker 초빙

